

[사회]

제33회 光日보훈대상 영광의 얼굴

전상군경 4급 김수성 씨

지난 1966년 8월 19세의 나이로 해병대에 지원 입대한 김수성(59)씨는 68년 베트남 호이안에서 매복 중 적군의 기습으로 왼쪽 허벅지 골절 및 총상을 입은 전상군경 4급 유공자다.

베트남 전쟁에서의 혁혁한 공로를 인정받아 인연 무공훈장을 받았지만, 제대 후 전상 후유증으로 고통을 겪었다. 그러나 73년 부



인 김유순씨와 결혼하고 '전방군제'에 입사해 17년 6개월간 근무를 하면서 전남도지사·노동부 장관 표창장 등을 받는 등 근면 성실하게 생활해 왔다.



1급 공상군경의 처 박윤자 씨

박윤자(57)씨는 지난 1975년 경찰인 남편 지영완(공상군경 1급)씨와 결혼했다. 남편 지씨는 1985년 11월 12일 당시 차안본부 고속도로 순찰대 5지구대 근무 중 순찰차량 전복사고로 척추 손상을 입고 조선대학교 병원에서 2년간 입원 치료를 받은 뒤 경사로 명예 퇴직 한 1급 국가유공자.

전상군경 유족의 처 정정자 씨

정정자(64)씨는 6·25전쟁 중 강원도 양구 지구에서 적과 교전때 왼쪽 어깨에 파편 상을 입고 제대한 전상군경 고 김상규(1982년 작고)씨의 아내.



히 보살폈지만, 후유증이 심했던 남편은 1982년 사망했다. 남편의 오랜 투병생활로 생활고까지 겹쳤고 장에 1급을 잃고 있는 막내 아들까지 있었지만 행사·식당일 등 온갖 일을 해가며 3남1녀의 자식들을 훌륭하게 키워냈다. 정씨는 90년부터 매 주 2~3회 복지시설에 들러 봉사활동을 하고 있다.

순직군경 유족의 부친 이한준 씨

이한준(74)씨는 1983년 경기도 동두천에서 훈련 중 사고로 숨진 이상배씨의 부친이다. 이씨는 외아들 순직에 따른 충격으로 몸져누운 부인 정창희(장에 2급)씨를 20여년 이상 간호 하면서도, '대한민국전몰군경유족회 광주지부'의 대의원으로 활동하며 현충탑 참배와 정화활동 등에 적극 앞장섰다.



참수 순경으로 근무하며, '빨치산 대치 작전'을 수행해 '대통령 수장'(1954년)과 'UN총사령관 종군 기자'(1958년)를 수여받았다. 이후 '광주시 6·25참전 경찰유공자회' 이사로 일하면서, 지리산 뱀사골·곡성 태안사·화순 이삼곡리 참전 순직경찰관 추모 행사를 적극 추진했다.

무공수훈 유족의 처 김종례 씨

김종례(72)씨는 6·25 전쟁 당시 백마고지 전투에서 혁혁한 공을 세워 '화랑 무공훈장'을 수여받은 김종규씨의 처이다. 남편이 무일푼으로 제대하자 빚으로 구입한 발을 갈며 생계를 꾸렸다.



장사였다. 1983년에는 광산구(당시 광산군) 재향군인회관을 자비로 짓기도 했다. 김씨는 이어 1988년 '재향군인회 광산구지회' 여성회장을 역임했다. 지난 2002년 남편이 폐암으로 숨진 뒤에는 '광산구 무공수훈자회 미망인 모임'을 결성, 광산구 현충탑 정기 참배와 자연정화활동에 나서기도 했다.

김씨는 훗날 경제적으로 자립하자 광산경찰서에 사무집기를 지원하고, 평동초등학교에도 재정적 후원을 하는 등 지역발전에 앞

“님의 숭고한 희생있어 이 나라 미래 밝습니다”

제33회 光日보훈대상 시상식

광주일보사가 주최하고 광주지방보훈청이 후원하는 '제33회 광일보훈대상' 시상식이 6일 오전 10시30분 광주시 남구 구동 광주시민회관에서 열렸다.

호국 영령들의 얼을 기리고 보훈가족들에게 희망과 용기를 북돋워 주기 위해 광주일보사가 제정한 이날 '광일보훈대상' 시상식은 흥영기 전남지방경찰청장, 송계축 광주지방보훈청장, 반병환 광주시의회 의장 등 각급 단체 기관장과 보훈가족 등 700여명이 참석, 수상자들을 격려했다.

광주일보 김진영 이사는 이날 시상식에서 1968년 베트남 전쟁 중 호이안 전투에서 왼쪽 허벅지에 총상을 입어 명예 제대한 김수성(59)씨 등 5명에게 각각 상패와 부상을 수

여했다. 김 이사는 기념식사에서 “올해로 33돌을 맞은 광일보훈대상은 어려운 환경을 극복하고 꿋꿋하게 삶을 일구기는 모범 국가유공자 및 그 유가족들에게 자활의 용기를 북돋아 드리기 위해 마련한 상”이라며 “목숨 바친 희생에 비견하면 보잘 것 없지만, 다시금 웃음을 머미며 마음속 깊이 우러나는 진심의 경의를 보태 마음의 상을 드린다”고 말했다. 송계축 광주지방보훈청장은 “오늘 행사는 역경과 고난 속에서도 결코 좌절하지 않고 오히려 이웃과 사회공공체를 위해 헌신적인 삶을 살아가신 보훈가족에 대한 존경과 감사의 마음을 다시 한번 되새기는 자리”라며 “앞으로도 더욱 모범적인 삶을 개척해 나감으로써 우리사회의 등불이 되어 주길 바란다”고 격려했다.

/임주형기자 jhlim@kwangju.co.kr



광주일보사가 주최한 '제33회 광일보훈대상' 시상식이 6일 오전 광주시 남구 구동 광주시민회관에서 보훈가족 등 7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 /나명주기자 mjna@

호남고속도로 급커브 1.1km 완만한 선형 개량 오늘 개통

호남고속도로 백양사 휴게소 인근 선형개량 공사 일부 구간이 7일 오후 6시에 개통된다.

한국도로공사 호남지역본부는 6일 '호남고속도로 순천지점 104.9~107.10km 지점인 장성군 북일면 백양사 휴게소에서 순천방향 1.1km 급커브 구간을 완만한 선형으로 개량해 조기 개통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개통되는 구간은 총 공사구간 2.2km 중 50%에 해당하는 1.1km로, 당초 오는 2007년 8월 개통될 예정이었다.

한편 공사는 지난해 3월부터 시작됐으며, 공사비는 163억이 들었다.

/이승배기자 lsb54@kwangju.co.kr

'오 필승 코리아' 작곡자 등 상대 '붉은 악마' 저작권 확인 소송

한국 축구대표팀 공식 서포터스인 '붉은 악마'는 6일 가수 윤도현씨가 부른 월드컵 응원가 '오 필승 코리아'의 작곡자 이모씨와 한국음악저작권협회를 상대로 저작권 확인 및 5천여만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서울중앙지법에 냈다.

'붉은 악마'는 "이 노래는 창립 때부터 사용됐고 소속 운영위원 2명이 저작권자인데 이씨가 동의없이 노래를 저작권 협회에 등록하고 포털 사이트 등에 상업적으로 제공해 지적재산권을 침해했다"고 주장했다. 이씨는 그러나 "응원 구호를 가창곡 형태로 만들어낸 만큼 이 노래에서 가사를 제외한 부분의 저작권은 나에게 있다"고 반박했다.

/이승배기자 lsb54@r

Weather forecast for June 7th (Friday) with a map of Korea showing regional conditions and a table of high/low temperatures for various cities.

World Cup 2006 section featuring a headline about the Korea national football team and a table of match results and statistics.

Advertisement for a bus service between Seoul and Gwangju, highlighting the convenience of the 'World Cup Special Bus'.

Large advertisement for 'Sea and Sun' (바다와 심에 쬐기) featuring various seafood dishes and promotional offers.

Advertisement for '영무플러스존 분양!' (Yeongmu Plus Zone Sale) featuring a large map and promotional details for a real estate project.